

광주시·전남 7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광주시·목포시·나주시·광양시·강진군·영암군·무안군·신안군

특구당 30억~100억 지원받아
육아환경 개선·지역인재 양성
광주, 공교육 혁신·돌봄 확대
목포·무안·신안, 해양관광 융복합
나주,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 미래농생명산업형
광양, 신소재산업 인재형 사업

광주와 목포·나주·광양·강진·영암·무안·신안 등 전남 7개 시군이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적으로는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됐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28일 광주·전남도와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정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에는 '1유형'으로 21개 기초단체, '2유형'으로 6개 광역단체, '3유형'으로 22개 기초단체가 포함됐다. 이중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1유형에는 광양시,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는 2유형은 광주,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3유형에 목포·나주·강진·영암·무안·신안 등이 뽑혔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형태로 특구당 30억~100억원을 지원받아 지자체 대응 자금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들 지자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오는 5월 2차 공모 때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광주형 인공지능(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확대 및 지역 거주 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13개 전략사업에 대해 교육부 컨설팅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32개 협약기관과 교육 발전 특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학교와 연계한 가정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과 자율형 공립고 2.0 활성화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를 5개까지 늘리고 대학과 협력해 인기학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80%까지 단계별로 확대한다.

정부의 늘봄학교 정착을 위해 올해 광주 교육 시민 협치진흥원 내 늘봄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6년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목포·무안·신안' 지역은 해양관광 융복합형, 나주 에너지 중심 혁신도시형, 영암·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형을 주제로 한 사업이 추진된다. 광양의 신소재산업 인재형 사업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매년 평가를 통해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7개 기초지자체 외에 해남의 솔라시도 기업도시형은 예비 지정돼 2차 공모에서 보완 사항을 재평가받게 됐다.

전남교육청은 특구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공통 과제와 지역별 특구 모델에 따른 특성과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공통과제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지역과 함께 하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급 간 연계 교육을 운영한다. 또 지역별 운영 모델에 따른 특성과 과제는 지역 발전 산업을 바탕으로 고등학교-대학교-산업의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2.0과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환영 성명을 내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200만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성원이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전남 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생태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투표로 함께해요" 3·1절 105주년을 앞두고 28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북구 직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참여 홍보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태아성별 언제든 알수있다 현재 "고지금지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가 되면서 임신부 등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9명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재판관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수 의견(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마·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목포 김원이·배종호,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문금주 경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를 비롯해 9개 선거구에 대한 8차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는 총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5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2곳이 발표됐다.

목포에서는 현역인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 경선으로 경쟁한다. 문용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과 최일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도 현역인 김승남 의원과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2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김수정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교수,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국장은 컷오프됐다.

목포



김원이 배종호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문금주

민주당 공천위는 또 광상언 전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장(서울 종로)·조재희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서울 송파갑)·윤호중 전 민주당 원내대표(경기 구리)·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을)·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5명을 단수공천하기로 했다.

전남 2곳을 포함해 서울 중·성동은 박성준 의원과 정호준 전 의원이,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전성 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위원장이 2인 경선으로 대결한다. 대구 달서병에서 공천을 신청한 남원환 예비후보는 컷오프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내일 3·1절 신문 쉽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

